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구원의 길

- 예수 그리스도

창세기 1:1, 요한복음 3:16

정윤돈 목사님

“하나님께서 계획을 가지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을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만남이 영원한 축복의 만남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는 결단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기존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던 우리들은, 다시 한 번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영접하게 하시고, 어두움을 밝히는,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도록 결단할 수 있게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영상을 잠깐 봤는데, 25년 전에 만났던 그 만남이 인생을 바꿔 놓았다. 다른 교회 성도인데, 우리교회 성도들 영상을 찍으려고 했더니 다 참회하다고 겸손해 하셔서 다른 교회 성도의 영상을 보았지만, 그 이상의 응답이 여러분에게 있었고, 앞으로도 있을 것이다. 오늘 너무 중요한 복음메시지를 증거하고자 한다. 처음으로 복음메시지를 듣는 분들 뿐 아니라, 확신이 약한 기존 성도들도, 오늘 증거되는 메시지를 듣고 인생의 많은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기를 바란다. 단 한 분이라도, 처음 교회에 오셨거나, 신앙생활을 꼭 해야 하는가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까 해서, 이런 부분을 서론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한다. 인생을 살면서 꼭 한 번은 고민하고 점검해야 하는 부분을 나눠 보겠다.

(1) 첫 번째 질문은, 하나님이 과연 계시까 하는 질문이다. 시14:1에,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은 없다 하는도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지혜로운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한다. 롬1:20에 보면,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그 지으신 만물에 밝히 드러나므로, 누구도 핑계치 못한다고 했다. 히3:4에 보면,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고 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다. 하나님이 계시는 증거는 참 많은 것 같다. 만약 내가 전혀 예수 안 믿는 집에 태어났더라도 나는 고민했을 것 같다. 여러분이 고민을 좀 해 봐야 한다. 의식주 고민만 하지 말고, ‘우주는 누가 만들었을까, 나는 누가 만들었을까, 인생은 무엇을 위해서 사는가, 절대자가 과연 있는가.’ 이런 고민을 해 봐야 한다. 나는 그런 고민을 했을 것 같다. 이 종교 저 종교를 다 두드려보았을 것 같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상은 마음에 들지 않았을 것이다. 머리 깎는 것도 싫고 (웃음) 교회를 왔을 것 같다. 목사님이,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사람은 자기 힘으로 절대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모두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나는 대답했을 것이다. “나에게 바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나에게 바로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안셀름(Anselmus)이라는 분이 하나님의 존재 증명이라는 글을 썼다. “정말 위대한 신이라면 완전한 것이다. 완전한 분이라면 존재할 것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 해서 나는 목상을 해 보았다. 이 땅에 정말 신이 있다면 그분은 완전한 분일 것이다. 완전하다면 존재할 수밖에 없다. 히11:3에 보면,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은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보여 달라고 하는데, 성경은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했다. 모든 눈에 보이는 것은 영이신 하나님이 만드셨다.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으나,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을 보면 그분이 설계하시고 계획하시고 운행하심을 너무나 잘 알 수 있다. 지구는 지금도 태양 주위를 시속 10만 km로 날아가고 있다. 끈도 없이 그게 가능하겠는가. 여러분은 별 고민도 없이 살아가는데, 우리가 사는 터전이 그렇다. 그것을 사람들은, 우연히 그렇게 되었다고 말한다. 말이 되는가. 이 태양계도 초속 250km로 날아가고 있다. 똑딱 한 번 하는 시간에 서울에서 부산까지 움직이고 있다는 말이다. 어떤 학자는 말했다. “우주는 미세하게 조정되고 있다. 중력, 자기력, 미세한 모든 힘들이 있다. 그런데 그 힘이 조금만 어긋나도 우주는 폭발해 버린다. 그렇다면, 어찌하여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다고 할 수 있겠는가.”

(2) 두 번째 질문이다. 그렇다면, 창조주 하나님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는 성경은 과연 하나님의 말씀인가 하는 것이다. 웰리스라는 사람은, 성경이 진실된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많은 사람이 읽는가, 이해가 안 된다 해서, 성경이 틀리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전 세계를 다니면서 자료를 모았다. 3년 후에 이 사람은 ‘성경은 틀렸다’ 라는 말을 쓰러다가 쓰지 못하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다. 여러분, 한 번이라도 질문하거나 고민해 본 적이 있는가. 내 친구 중에서 ‘교회는 장사하는 것에 불과하다. 선악과를 왜 하나님이 만들었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다. 그래서 나는 말한다. “야, 너는 교회 안 가는 대신에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우잖아. 교회 가는 게 더 돈이 적게 드는

거야.” 동창들이 다 인정했다.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손해인가? 이익을 보려고 교회 다니는 것은 아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예배드리는 것이다. 그러나 세상적으로 계산해도 손해보다 이익이 백만 배 많다. 모든 것이 지켜진다. 가정도 지켜진다. 재산도 지켜진다. 우리 자녀도 지켜진다.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축복이다. 최근 들어서 성경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증거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 몇 가지를 들자면, 욥26:7의 내용이다. “그는 복원 하늘을 허공에 퍼시고”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뉴욕타임즈지에서, 1981년 10월에 천문학자들이 망원경으로 북극성 주변을 관찰했더니, 은하수 2천 개가 들어갈 수 있는 넓은 공간이 텅 비어있음을 발견했다고 보도했다. 이것이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고민했는데, 어떤 학자가 성경에서 이 구절을 발견했다. “성경에 있었다.” 수천 년 전에, 하나님이 감동하시지 않았다면 욥이 어떻게 이런 것을 쓸 수 있었겠는가. 욥26:7에, “땅을 공간에 다시며.” 이것은 우주선을 타고 지구 밖으로 나가서 지구를 바라보는 것과 같은 모습이다. 많은 책을 보라. 과거에 지구의 모습을 어떻게 상상해 왔는가. 불과 몇 백 년 전이다. 신이 지구를 만드신다, 지구는 평평해서 끝까지 가면 절벽으로 떨어진다 하는 것이다. 그런데 성경은 수천 년 전에 이미 하나님이 지구를 우주에 매달아 놓으셨음을 말하고 있다. 왜 이런 것을 썼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라고 증거를 주신 것이다. 잠8:27에 보면, 영어로 봐야 이해가 잘 되는데,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으로 해면을 두르실 때 내가 거기 있었고” 한글로는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영어를 보면, “He draw a circle on the pass of the sea.” 하나님이 바다 길에 서클을 그리셨다는 것이다. 하나님이 수면에 운행하신다는 창1:2의 말씀과 같은데, 이것은 바다가 둥글다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다. 소돔과 고모라 유적이 고고학적인 발굴을 통해서 비로소 발견되었는데, 사해 바다 속에서 발견되었다. 유황으로 다 타 버린 것이 발견되었다. 4천 년 전의 일을 성경은 분명히 기록했다. 바다 속에 있었으니 위치를 알 수 없었는데, 가뭄 때문에 발견되었다. 이 시대의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믿으라고 하신 것이다. 물리학적으로도 많은 분들이 이야기한다. 분자가 있는데, 그보다 작은 것이 핵이요, 그보다 작은 것이 원자고, 그보다 작은 것이 전자고, 그보다 작은 것이 쿼크고 힉스고 그렇다. 그런데 이제 그 모든 물질의 근원이 끈이라고 주장하게 되었다. 파동, 음성이라는 것이다. 천재 물리학자들이 연구해낸 결론이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하는가?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빛이 있으라 하니 빛이 있었고” 빛도 파동이다. 현대 과학이 발전되면서 성경이 진리임이 밝히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서울대 물리학과와 제원호 교수가 쓴 글을 얼마 전에 보았다. 예일대학을 졸업한 분이다. “인간의 유한한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무한하신 하나님, 창조주의 하나님을 알 수 있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여러분 심령에 역사하심으로써, 창조주 하나님이 믿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란다. 어떤 지혜로도, 어떤 공부로도 안 된다. 빛이 들어와야 한다. 영원한 것을 믿을 수 없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이 계시의 영으로 믿을 수 있는 지혜를 주셔야만 믿어지는 것이다. 그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란다. 또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증거가 있다. 어떤 통계학자가 말하기를, 성경에는 많은 예언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증거한다는 것이다.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동정녀에게서 태어나고, 나사렛에서 자라고, 은 삼십에 팔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다는 것들을 두고 통계적으로 한 사람에게서 이루어질 확률을 계산해 보니 10¹⁷분의 1이라고 했다. 있을 수 없는 확률이다. 여덟 가지 예언만 일치되는 데에도 그렇게 확률이 낮는데, 구약에는 수백 개의 예언이 있고, 그 예언이 다 그리스도에게서 성취되었다. 이것이야말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증거하는 것이다. 성경 안에 있는 모든 말씀은 그래서 여러분이 마음껏 믿어도 되는 것이다.

(3) 천국과 지옥과 심판은 존재하는가? 히9:27은 말씀한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4) 많은 종교가 있는데 왜 꼭 예수만 믿어야 하는가? 만약 석가모니 선생님, 공자 선생님, ‘나를 믿으라’고 했다면 나는 고민을 해 봤을 것이다. 그러나 사비비 종교 교주 외에는, ‘나를 믿으라’는 말을 한 사람이 하나도 없다. 무슬림 출신인데 한국에 와서 복음을 받고 전도사가 된 분과 대화를 해 봤는데, 이분의 이야기다. 코란을 읽다가 이슬람 지도자가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것이다. 코란에서 그렇게 자세히 말하는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찾다가,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임을 알게 되고 믿게 되었다는 것이다. 친구들이, “너는 왜 이슬람교를 잘 믿다가 예수를 믿게 되었느냐?” 물었다고 한다. 그래서 오백 전도사님이 말했다고 한다. “내가 10분 시간을 줄 테니까 네가 나를 무슬림이 되어야 할 이유를 말해 봐.” “몰라. 그런 거 없어.” (웃음) “그러면 나에게 10분의 시간을 줘. 예수 믿어야 할 이유를 내가 말해 줄게.” 10분 만에 친구 네 명이 다 예수님을 영접했다. 조금만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점검하면, 우리가 가진 이 믿음이 최고의 믿음이고 진리임을 알게 될 것이다.

1.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실재

성경은 말씀한다. 하나님을 떠나면 고통과 어려움에 빠진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인간은 사단에게 속아 하나님을 떠나서 타락하게 되었다. 그때부터 인간은 육적인 길, 죄인의 길을 갈 수밖에 없게 되었다. 롬8: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써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지 않으면 육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다. 롬8:6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갈5:19-20에 보면,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하나님을 떠나면 인간은 부패해지게 되어 있다. 타락하게 되어 있다. 요3:16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면 멸망의 길로 치닫게 되어 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세상, 즉 여러분이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이처럼 사랑하사, 영생을 얻게 하려고 하신 것이다. 두 가지의 선택이 있다. 이 땅에서 멸망하다가 영원토록 멸망의 길로 갈 수도 있고,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고 행복하게 살다가 영원한 행복한 천국에 갈 수도 있는 것이다. 이 시간 소중한 결단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한다.

2.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고통과 문제

(1) 그러면 하나님을 떠난 사람에게 어떤 고통과 문제가 있겠는가? 먼저, 영적인 고통이 있다. 우상 숭배하고, 제사지내고, 접점이, 무당을 찾고, 종교를 찾아다닌다. 누가 참 부모인가? 바로 내 육신을 낳아 주신 분이 참 부모다. 누가 참 신인가? 바로 내 영혼을 만드신 분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만드셨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다.

(2) 이렇게 영적인 문제가 생기면 정신적인 문제가 시작된다. 하나님 떠나면 다 가지고 있다. 어떤 청소년과 상담을 해 봤는데 밤마다 가위에 눌린다고 한다. 대부분 문제 청소년들이 악몽 꾸고 가위눌리고 있었다. 마음이 불안하고, 스트레스 받고, 밤에 잠을 못자고, 악몽 꾸고, 가위눌리고, 우울증에 시달리고, 마음이 공허하고, 자살하고 싶고, 귀신소리 들리고, 또 어떤 집에는 정신병 환자가 있다. 내가 고통스럽지 않으면 옆의 사람이 고통을 준다. 무엇으로 이것을 해결할 수 있겠는가. 내 가정이, 집안이 지옥 같은데, 오직 그리스도, 오직 예배 밖에 없다. 모든 문제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해결된다. 해결의 문이 열리기 시작한다.

(3) 이제 하나님을 떠나면 육신의 문제로 들어가게 된다. 가난해진다. 사고도 당하고, 질병에 걸리고, 사업에 실패하고, 도박하고, 실업자, 담배중독, 술 중독에 빠지고, 마약중독, 게임중독, 스마트폰 중독. 나는 마약중독퇴치본부에서 상담을 하고 있는데, 마약 하는 사람 중에서 유학생들이 참 많다. 마약을 하는 것이 즐겁지도 않은데 중독이 되어서 끊지도 못한다고 한다. 그러나 세상 방법으로 안 되는 것이 복음으로 되는 줄 믿으라. 그러면 이 모든 육신문제가 언제부터 시작되었는가? 바로 하나님을 떠난 후부터다.

(4) 이 육신 문제가 심하면 생활에 실패한다. 부부가 말다툼하고, 싸움하고, 별거하고, 이혼하고, 부부가 이혼하면 누가 제일 고통당하는가? 바로 자녀다. 또 경제적으로 고통당한다. 또 마음에 평안이 없다. 가정이 깨지는데 이유도 모르고 싸우고 있다. 해결의 방법도 모르고 있다. GDP는 높아가고 과학은 발전하고 지식은 많아지는데 사람들은 점점 불행해지고, 무너지고 있다.

(5) 그러다가 죽으면 지옥에 가니까, 얼마나 불행한 일인가?

(6) 이 문제를 후대들에게까지 물려주게 된다는 것이다.

3. 인간의 노력과 실패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 모든 저주와 재앙이 창세기 3장의 세 가지 문제에서 왔다는 것을 아는가, 모르는가? 모른다. 그래서 여러분이 알려줘야 한다. 그래서 사람들이 과학, 철학, 선행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지만 해결되지 않고 오히려 점점 커진다. 이 불신자 상태의 여섯 가지 문제는 원래 하나님을 떠난 이후부터, 죄를 범한 이후부터, 마귀에게 속은 이후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그럼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가? 없다. 스스로 지금까지 지은 죄를 씻을 수 있는가? 없다. 스스로 사단 마귀를 이길 수 있는가? 없다.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 죄를 씻을 수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 없으며 마귀를 이길 수 없다.

4. 하나님의 방법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세상에서 가장 기쁜 소식이 있다. 하나님이 우리 스스로 이 3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아시고, 우리에게 이 3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주신 것이다. 그 방법이 바로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는 이 3가지 문제

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의 해결자가 되신다. 그리스도는 직분인데, 3가지 직분이 있다. 바로 만왕의 왕의 직분과, 대제사장의 직분과, 참선지자의 직분이다. 그리스도는 이 3가지 직분으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

(1)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의 직분으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마귀의 머리를 깨뜨리셨다. 그리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

(2) 또 그리스도는 대제사장의 직분으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의 원죄와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씻어 주시고, 우리를 죄와 저주로부터 해방시켜 주셨다.

(3) 또 그리스도는 참선지자의 직분으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하나님 떠난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 주셨다.

당신 스스로는 하나님께로 갈 수 없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께로 갈 수 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신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 대제사장, 참선지자의 직분으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이 6가지 문제의 근본 원인인 창세기3장의 이 3가지 문제를 깨끗이, 확실히, 영원히 해결하셨다. 그러면 누가 이 위대한 그리스도가 되시는가? 바로 2000년 전에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그 그리스도가 되신다. 저를 따라서 해 보자. “예수는 그리스도.”

5. 하나님 자녀의 7가지 축복

이제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믿으면 구원을 받고 행복이 시작된다.

요한복음 3:16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누구든지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이 영생의 7가지 축복을 받게 된다. 그럼 이 7가지 축복이 무엇인가?

(1) 첫 번째, 이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2) 두 번째,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들어가셔서 천국 갈 때 까지 인도해 주신다.

(3)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을 주신다.

(4) 네 번째, 천사를 보내서 24시간 보호해 주신다.

(5) 다섯 번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사탄이 결박되고,

(6) 여섯 번째, 여러분의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고, 천국 백성이 된다.

(7) 일곱 번째, 이 복음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는 복을 주신다.

6. 하나님의 자녀되는 길

하나님은 여러분도 이 영생의 7가지 축복을 받기를 간절히 원하신다. 그래서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 주셨다. 그러면, 여러분은 불신자가 망하는, 하나님 떠난 그 인생이 망하는, 그 6가지 고통 속에 살아가기를 원하시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 영원한 축복 받기를 원하시는가? 요한계시록 3:20에, ‘불지이다. 내가 문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고 했다. 또 로마서 10:10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라고 했다.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이 입을 열어서 마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고백의 기도를 했으면 좋겠다. 마음으로 믿고 저를 따라 기도해 주시기 바란다. 오늘이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다. 새로운 기회일 수도 있다. 인생의 최고 전환점일 수도 있다. 그동안 종교인처럼 형식적으로 교회에 왔다갔다 했다면, 내 마음, 영혼, 인생의 주인을 바꾸시기 바란다. 거듭나시기 바란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전혀 변하지 않는 분들을 보면 나는 안타깝다. 예수 믿는 것이 그런 것이 아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주인으로 모시면 모든 것이 달라질 것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사람이 될 것이다.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이 여러분을 볼 때, ‘아니, 어떻게 이렇게 사람이 좋아졌어? 어떻게 이렇게 달라졌어?’ 그렇게 되어야 한다. 그게 리얼 크리스천(real Christian)이다. 그 반대말로, 처치고어(church goer)가 있다. 교회만 왔다갔다 하는 사람이다. 당신은 교회 다니는 사람인가, 리얼 크리스천인가? 참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축원한다. 영접의 기도를 같이 하도록 하겠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만이 유일한 창조주이심을 알았습니다. 지금 이 시간, 믿지 않았던 저의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옵소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영생의 길을 열어 주심을 알았습니다. 지금 제 마음의 문을 열고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을 영원한 주인으로 모셔드립니다. 지금부터 제 영혼과 인생 속에 들어오셔서 저를 다스려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